

# 한국문단 다양성 주도 문학과지성사 창립삼십돌



## 초기 간행물의 성공으로 가파른 성장

문학과

지성사(이하 문지)는 당시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김주연과 동아일보 해직기자 김병익, 그리고 1970년 창간한 계간 '문학과지성'의 동인인 김현, 김치수 4인이 함께 뜻을 모으면서 창립됐다. 문지의 출범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보잘 것 없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렇게 시작된 문지는 출판에 문외한이었던 비평가들이 만든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나간다. 출판사의 창립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던 동인들의 의욕과 정성, 출판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과 재능을 가진 이기웅, 권영빈, 이규원, 김승옥 등의 실질적인 도움 등을 바탕으로 창사 초기의 서투름과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해 나간 것이다.

문지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초기 간행물의 상업적 성공을 배경으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최인훈 전집을 간행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6년 2월에 처음으로 간행한 책이 홍성원의 '주말여행'과 조해일의 '겨울여자'였다. 이 중 후자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 출간 원칙의 철저한 고수

문지는 이렇게 출

판사의 기틀이 잡혀감에 따라 출간 종수가 늘어나고 편집과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수가 늘어남에 따라 1978년 6월 종로구 통의동으로 사무실을 옮긴다. 그리고 이때까지 간행한 책이 1백 종에 달하면서 출판의 기준과 운영의 원칙을 만들기 시작한다. 동인들이 평소 가졌던 생각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칙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문지의 출간 기준은 첫째 수필집·아동도서·참고서·교과서는 내지 않는다는 것, 둘째 자비출판은 사양한다는 것, 셋째 외국 것은 문학과 인문과학의 이론서 혹은 고전적인 시집으로 한정하고 소설을 출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적용된 문지의 운영 방침은 "한국인의 저작은 10퍼센트의 인세로 하고, 번역의 경우도 원고료 외에 별도로 5퍼센트의 편자 인세를 지급하거나 전체 인세 1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 계몽과 비판의식의 확대에 주력

1980년 7월말, 신

군부 정권에 의해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간 '문학과지성'이 등록취소를 당하면서 문지는 유신 시대보다 더 엄혹해진 출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출판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행본의 경우 검열을 피하기 쉬운 역사서와 외국 저서를 통해 계몽과 비판적 의식의 확대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

1975년 설립 이래 학술, 인문, 문학 분야의 대표적 서적들을 발행해 온 문학과지성사가 지난해 12월12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약 1천여종이 넘는 도서를 발행해 오며 한국 문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온 문지.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단행본 형식의 사사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 를 통해 그 동안의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해본다.



문학과지성사 창립30주년때와 최호기 대표가 3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1981년 여름 서광선 교수가 번역한 피터 버거의 '이탄의 시대' 와 김병익이 번역한 휴즈의 '현대 프랑스 지성사' 로부터 시작되는 '현대의 지성' 시리즈와 1982년 가을,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이념과 문학', 빅토르 어얼리치의 '러시아 형식주의' 의 번역으로 나타나는 '현대의 문학 이론' 시리즈, 그리고 계급·민중·민족·혁명 등 당대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어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천착하기 위해 1984년 가을에 시작한 '문제와 시각' 총서 등은 바로 그런 전략의 소산이었다. 1986년에 신용하의 '사회사연구회' 와 제휴해 '사회사 연구 총서' 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 세대교체, 주식회사로의 전환

문지는 1989년 4월, 안정된 자리를 찾아 사무실을 마포구 서교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편집과 운영에 '문학과사회' 동인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출판 상황이 창사 시기와는 달라짐에 따라 지금까지 지켜온 출간 원칙들을 1990년대 들어 하나씩 깨기 시작한다. 어린이 책을 내고, 산문선이란 이름으로 수필집을 내고, 번역 소설도 간행하기 시작한다. 다만 자비 출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변함없이 지킨다. 이런 변화는 대중적인 출판이 출판 시장을 압도하는 와중에서 본격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타협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 타협을 문지 1세대들이 먼저 시작함으로써 2세대들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출판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 6월에 창립 동인중 김현이 작고하고, 1993년 1월에 황인철이 작고하면서 문지는 '주식회사 문학과지성사' 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식을 2세대들에게 배분해주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출판사의 경영권까지 '문학과사회' 세대들에게 이양하게 된다. 2000년 3월의 주주 총회에서 김병익이 대표이사직에서 상임고문으로 물러나고 문지 2세대를 대표해 채호기가 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1세대들이 25년동안 1165종의 책을 간행하며 만들어낸 역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문지는 현재 3세대에 이르러 잡지의 편집자들이 독문학 전공인 김태환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문학 전공자들로 바뀌는 변모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창립 30년 만에 마련한 마포구 서교동의 단독 사옥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치원 기자)